

르페브르 사회공간론에 기반한 어린이 시민성의 재해석

김윤하*

Reinterpreting Children's Citizenship through Lefebvre's Socio-Spatial Theory

Yunha Kim*

요약 : 본 연구는 어린이 시민성을 권리, 의무, 참여, 정체성 중심으로 이해해 온 기존 논의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어린이를 현재의 삶 속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시민적 주체로 이해하고, 어린이의 장소 경험과 시민성의 관계를 탐색해 왔다. 이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을 통해 공간 질서와 어린이의 몸과 감각, 관계와 실천의 관계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과 차이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어린이 시민성을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자질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변형하는 실천으로 재해석하였다. 어린이 시민성,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 르페브르 사회공간론 관련 문헌을 이론적·해석적으로 검토하였고, 연구 결과, 어린이 시민성은 공간 맥락을 몸으로 읽어내는 '깨어나는 지각', 주어진 공간의 의미를 의심하고 비트는 '창조적 인지', 공간을 전유하며 다른 질서를 만들어 가는 '활동가적 시민성'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어린이 시민성교육은 제도화된 참여 프로그램의 제공을 넘어, 어린이가 자신의 일상생활 공간을 감각하고 해석하며 변형할 수 있는 경험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어린이 시민성, 사회공간론,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차이 공간, 전유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existing discussions of children's citizenship—traditionally understood in terms of rights, responsibilities, participation, and identity—from the perspective of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Previous studies of children's citizenship have recognized children as civic subjects who think and make judgments within their present lives and hav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xperiences of place and citizenship. Drawing on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this study extends such discussion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spatial order, children's bodies and senses, social relations, and practices. Based on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and the concept of differential space, this study reconceptualizes children's citizenship not as a set of qualities manifested within space, but as a practice through which children perceive, interpret, and transform the meanings and orders of space. Literature on children's citizenship, children's everyday spaces, and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was reviewed theoretically and interpretively. Th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citizenship can be reconstructed in three dimensions: "awakened perception," through which children bodily perceive and read spatial contexts; "creative cognition," through which they question and disrupt the given meanings of space; and "activist citizenship," through which they appropriate space and create alternative spatial orders. Accordingly, citizenship education for children needs to move beyond the provision of institutionalized participation programs and expand toward creating opportunities for children to sense, interpret, and transform the spaces of their everyday lives.

Key Words : Children's citizenship, Socio-spatial theory, Henri Lefebvre, Production of space, Differential space, Appropriation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 박사과정(Ph.D. Student, Major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ketchbook32@naver.com)

I. 서론

시민성교육은 오랫동안 어린이를 미래의 성인 시민으로 준비되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아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는 현재의 시민이라기보다 아직 시민이 되어가는 존재로 이해되었고, 시민성 역시 성인이 된 이후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능력으로 간주되기 쉬웠다. 그러나 어린이가 성인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Howe, 2005: 45-46). 최근의 어린이 시민성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어린이를 현재의 생활세계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관계를 맺으며 참여하는 시민적 주체로 바라본다. 시민성은 고정된 권리와 책임의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자신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Jans, 2004:31, 39-40), 이러한 시민적 실천은 완전한 법적 시민권과 별개로 사실상의 시민성을 구성할 수 있다(Lister, 2007:699, 717-718). 어린이 시민성을 미래에 획득해야 할 자질이 아니라, 어린이가 현재의 삶 속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시민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어린이 시민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으로 본다면, 그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의 장소 경험과 시민성 형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김혜진, 2022; 2023). 이들 연구는 어린이가 학교와 지역사회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을 경험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이는 성인이 규정한 기능에 따라 공간을 단순히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공간을 감각하고 의미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차이는 성인이 마련한 공식적 장소인 ‘어린이를 위한 장소’와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의미화하는 ‘어린이의 장소’의 구분에서도 드러난다(Rasmussen, 2004:155). 한편 공공 공간이 성인 중심으로 생산될 경우 젊은이들의 활동은 기존의 공간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Valentine, 1996:205). 이는 어린이의 공간 경험을 단순히 장소에 대한 애착이나 의미 형성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공간의 기능과 질서를 규정하고 어린이는 그 질서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앙리 르페브르(H. Lefebvre)의 사회공간론은 어린이 시민성과 공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고정된 배경이나 중립적인 무대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이라는 삼항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성된 공간 질서와 사용자의 일상적 실천 및 체험이 맞물리면서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이 드러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71, 86-91). 어린이가 살아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간 역시 이미 완성되어 주어진 배경이 아니라, 제도와 규범, 물질적 배치, 일상적 실천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어린이는 이러한 공간 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전유와 차이 공간의 개념은 어린이가 주어진 공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의미화하며, 때로는 기존 질서와 다른 관계와 사용 방식을 만들어 갈 가능성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은 어린이의 장소 경험을 공간 질서의 생산과 전유, 변화의 문제로 확장하고 이를 시민적 실천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시민성을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개인적 자질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구성해 가는 실천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시민성에 관한 연구, 어린이의 일상생활 공간 및 장소 경험에 관한 연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과 관련된 1·2차 문헌을 검토하였다. 문헌은 연구 문제와 직접 관련되며 어린이 시민성과 공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개념적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어린이 시민성 연구에서 참여와 공간 경험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르페브르의 공간삼중성, 추상 공간과 차이 공간, 전유의 개념을 통해 해석하였다. 나아가 어린이 시민성을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의 세 차원으로 재해석하였다.

II. 어린이 시민성 논의와 르페브르(H. Lefebvre)의 사회공간론

1. 어린이 시민성의 주요 쟁점

어린이 시민성 논의의 출발점에는 어린이를 어떠한 존

재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어린이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시민으로 바라볼 경우 시민성은 성인이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할 자질이나 능력으로 이해되기 쉽다. 최근의 어린이 시민성 논의는 어린이를 시민성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의미를 구성하며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는데 가깝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 시민성은 권리와 의무의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어린이의 일상적 참여와 실천이 어떻게 사실상의 시민성을 구성하는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Lister, 2007:717-718). 국내에서도 어린이는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 능동적 존재로 논의되어 왔다(김혜진, 2020:309).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어린이를 성인이 되기 이전의 미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세계에서 관계를 맺고 의미를 구성하며 참여하는 주체로 이해한다.

어린이 시민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와 실천으로 이해한다면, 어린이가 살아가는 공간과 지리적 경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지리교육에서는 어린이의 생활세계와 사적 지리, 장소 체험을 지리적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김정아·남상준, 2005),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만의 맥락을 형성하는 주체라는 점도 강조되어 왔다(김현주, 2020). 한편 지리교육에서 시민성은 지식이나 태도의 습득을 넘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시민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조철기, 2017), 일상생활의 공간적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적 공간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간적 시민성으로도 논의되어 왔다(김민성, 2017). 어린이를 정치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연구 역시 시민성을 구성원됨, 권리, 참여가 서로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Phillips *et al.*, 2020:592, 594), 일상의 미시적 행위와 친사회적 행동, 신체적 표현 또한 시민적 실천으로 파악한다(Ryder and van Krieken Robson, 2023:114, 120).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어린이 시민성은 고정된 자격이나 발달 단계라기보다, 어린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의미를 구성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 시민성은 구체적인 교육적 경험 속에서도 형성되고 실천된다. 생활 주변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하며(고훈석, 2013:154), 학생 주도 환경 프로젝트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참여와 임파워먼트가 나타났다(오민주·김찬국, 2022:667-669). 이는 어린이 시민성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 시민성과 공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도 축적되어 왔다. 김혜진(2022)은 학교와 지역사회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어린이의 제3장소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놀이와 신체활동, 대화와 소통, 휴식과 개인 활동이 이루어짐을 밝혔다(김혜진, 2022:18-19). 이어 학교 내 제3장소가 어린이의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며 시민성 함양의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김혜진, 2023:6, 11). 이러한 연구는 어린이의 시민성이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장소 경험 및 의미 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해외에서는 어린이가 성인에 의해 구성된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하는지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을 통해 해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Kellock and Sexton(2018)은 르페브르의 공간 삼중성을 활용하여 성인이 설계한 교육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관점을 분석하였으며, Mechlenborg and de Neergaard(2024)는 공간 삼중성을 어린이의 공간적 사고를 위한 교육적 모델로 구성하여 어린이가 자신의 공간 경험을 바탕으로 지각된 공간, 인지된 공간, 체험된 공간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존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시민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와 실천으로 이해하고, 이를 장소 경험과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로 확장해 왔다. 한편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을 통해 어린이의 공간 경험을 해석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 두 논의를 연결하여,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사용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시민성의 형성과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르페브르의 공간 삼중성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성된 공간 질서와 어린이의 일상적 실천 및 체험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유와 차이 공간의 개념을 통해 어린이가 주어진 공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형성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2. 공간의 패러다임 전환: 공간의 생산

공간은 오랫동안 사물과 인간이 위치하는 고정적인 물리적 배경이나 사회적 행위가 일어나는 중립적 무대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은 사회와 분리된 독립적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상호 구성되는 장이다(권정화, 2005:247).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공간을 물리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권력, 실천이 조직되는 방식의 문제로 바라보게 한다.

르페브르(H. Lefebvre)의 사회공간론은 이러한 공간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한다. 그는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을 사회적 생산물로 보았으며(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71), 공간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생산양식, 권력의 배치, 일상적 실천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공간’은 어린이가 살아가고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장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면, ‘사회적 공간’은 이러한 공간이 사회적 관계와 제도, 권력, 일상적 실천 속에서 생산된다는 르페브르적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의 생산은 건물이나 시설을 물리적으로 조성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도적 규정과 물질적 배치, 반복되는 행위와 몸의 감각, 기억과 상상력이 결합하면서 공간은 특정한 의미와 질서를 갖게 된다. 공간은 지배와 통제가 재생산되는 장이면서도, 인간의 몸과 일상적 실천을 통해 다른 관계와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장이기도 하다(신승원, 2014:82-85). 공간 안의 주체 역시 이미 완성된 공간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를 사용하고 의미화하며 변화시키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린이 시민성을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린이의 시민성은 제도적 권리나 공식적인 참여 절차 안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놀이터, 통학로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관계를 맺으며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경험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본 연구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은 어린이의 공간 경험 자체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이가 살아가는 공간의 질서가 어떻게 생산되며, 어린이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전유하며 변화시키는지를 시민성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공간의 삼중성: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

사회적 공간은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이라는 삼항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 이 삼항은 각각 지각된 공간, 인지된 공간, 체험된 공간에 대응한다. 이들은

서로 분리된 범주가 아니라 중첩되고 충돌하며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며, 공간이 생산되고 충돌하며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변증법적 틀로서의 기능을 한다.

먼저, 공간적 실천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와 물리적 흐름을 가리킨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각하면서 반복하는 공간이며, 이동, 사용, 관계 맺기의 방식과 관련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89). 공간적 실천은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몸을 통한 실제 행위이다. 예컨대 어린이가 매일 등교하고, 복도를 지나고, 교실에 앉고, 도서관의 특정 자리를 반복적으로 찾는 행위는 공간적 실천에 해당한다.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학교 공간을 유지하는 동시에, 때로는 기존의 공간 질서를 다르게 사용하게 하는 힘이 된다.

공간의 재현은 계획가, 행정가, 전문가, 제도 권력이 지식과 기호를 통해 구성하는 공간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재현을 과학자, 계획수립자, 도시계획가, 기술관료들이 공간을 구획하고 배열하는 인지된 공간으로 설명한다. 이는 주어진 생산양식에서 지배적인 공간이며, 언어적 기호와 지적으로 연마된 기호 체계를 지향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86-87). 학교의 교실은 학습 공간으로, 도서관은 독서 공간으로, 놀이터는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복도는 이동 공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사용의 범위를 제한한다.

재현의 공간은 사용자가 실제로 살아내고 경험하는 공간이다. 재현의 공간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체험된 공간, 곧 주민과 사용자, 예술가, 작가와 철학자의 공간이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91). 이 공간은 지배받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상상력으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리듬으로 재창조하려는 공간이다. 재현의 공간은 설계도나 규칙으로 모두 포착되지 않는 감각적, 상징적, 정서적 공간이다. 이처럼 세 공간은 서로 분리된 범주가 아니라 중첩되고 긴장하며 사회적 공간을 생산하고 변화시키며, 이러한 관계는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질서를 어떻게 경험하고 다르게 사용하며 의미화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4. 소외의 극복과 대안 공간으로서의 차이 공간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은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배적 공간 질서

가 인간의 몸과 삶을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그리고 그 소외를 넘어서는 대안적 공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추상 공간과 차이 공간이다.

추상 공간은 자본주의와 국가 권력이 공간을 동질화·계량화하고, 다양한 삶과 차이를 효율, 교환, 관리, 규범의 질서 안으로 포섭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학교의 공간 구획이나 우측통행, 정숙 등의 규칙은 안전과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공간의 사용 방식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의 다양한 리듬과 사용 가능성을 일탈로만 처리할 때에는 추상 공간의 동질화와 기능화의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 르페브르에게 추상 공간은 이러한 동질화와 함께 사유재산과 교환가치의 논리에 따라 공간을 분절하고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102-104).

차이 공간은 이러한 추상 공간의 동질화와 통제에 균열을 내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류도향, 2024:107, 109). 추상 공간에서는 소비에 의한 잠재적 수요와 실질적 결핍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며, 이러한 공간의 모순은 추상 공간의 균열로 이어진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106). 차이 공간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공간의 획일적인 기능과 제도적 규칙이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전치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질서가 형성되는 대안적 공간이다. 차이 공간은 추상 공간이 지닌 모순에 맞서 공간 이용자가 자신의 몸과 고유한 삶의 리듬을 되찾음으로써 나타나는 탈소외와 관계 질서가 재창조된 공간이다.

차이 공간은 전유(appropriation)를 통해 생산된다. 소유가 공간을 법적, 경제적으로 점유하는 방식이라면, 전유는 공간의 주체가 자신의 삶의 요구, 욕망, 리듬에 맞게 공간을 변형하고 사용하는 실천적 과정이다. 르페브르에게 전유된 공간은 한 집단의 필요와 가능성을 위해 변화된 공간이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258-259). 공간의 주체가 공간을 전유할 때, 그 공간은 더 이상 획일적인 기능에 갇혀 있지 않고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차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은 어린이 시민성을 공식적인 참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전유하여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만들어 가는 실천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III. 르페브르 사회공간론으로 읽는 어린이 시민성 담론

기존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어린이의 참여와 장소 경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다양하게 논의해 왔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읽으며, 공간에 부여된 기능과 규칙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어린이가 이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전유하며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공간 질서와 어린이의 시민적 실천의 관계를 공간적 실천의 비가시화,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화, 참여의 제도화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추상 공간에서의 어린이 공간적 실천의 주변화

추상 공간은 공간을 분절하고 기능에 따라 배치하며, 차이와 우연성을 통제 가능한 질서 안으로 포섭하는 사회적 형식이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102). 르페브르가 추상 공간을 생산의 수단이자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학교 공간 역시 그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학교는 교육적 목적과 안전, 관리, 효율을 위해 공간을 구획하고 기능을 부여한다. 교실은 학습의 공간, 복도는 이동의 공간, 운동장은 체육과 놀이의 공간, 급식실은 질서 있는 식사의 공간으로 기능화된다.

이러한 질서는 학교생활의 안전과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공간 사용의 기준이 어린이의 다양한 실천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할 경우 어린이는 공간의 의미를 함께 구성하는 주체보다 주어진 질서에 맞추어야 하는 객체로 위치하게 된다. 학교의 시간표, 종소리, 이동 동선과 생활 규칙은 어린이의 몸과 리듬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하고 공간을 관리 가능한 질서로 재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뛰기, 머무르기, 우회하기, 숨기, 이야기 나누기와 같은 행위는 어린이가 공간을 살아내는 방식이라기보다 생활지도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다.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어린이의 공간적 실천을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언어가 될 때 발생한다. 어린이가 자신의 몸과 리듬을 통해 공간을 사용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시민성 역시 실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관계 맺으며 장소를 의미화하는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있다. 결국 시민성은 공간을

함께 구성하는 실천보다 주어진 질서 안에서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태도로 축소될 수 있다.

2. 어린이 시민성 논의에서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화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어린이를 미숙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아 민주주의의 주변에 위치시켜 온 성인 중심적 관점을 비판하고, 어린이를 현재의 사회적·정치적 삶에 참여하는 주체로 이해해 왔다(Wall, 2012:86-87). 국내에서도 어린이는 시민성교육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의미를 창출하고 협상하는 능동적 존재로 논의되어 왔으며(김혜진, 2020), Jans(2004)는 시민성을 고정된 권리와 책임의 집합이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어린이 시민성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참여의 과정으로 확장한다.

한편 이러한 의미 구성은 주로 타자와의 관계, 참여, 소속감과 정체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다. 공간 역시 어린이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공간 안의 규칙, 사용 방식을 어린이가 어떻게 인식하고 다르게 해석하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그 결과 주어진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차원은 어린이 시민성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간적 상상력은 특정 장소에 부여된 기능과 규칙, 사용 방식이 유일한 가능성이 아님을 인식하고 다른 사용 방식과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을 뜻한다. 예컨대 복도를 교실과 교실 사이를 이동하는 통로로만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넓은 창가나 계단에 잠시 머물고 이야기하거나 놀이할 수 있는 장소로 상상하는 것은 주어진 공간의 기능을 넘어 다른 가능성을 구성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가 이미 정해진 공간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공간의 의미와 사용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과 관련된다.

르페브르에게 공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며, 재현의 공간은 지배적 공간 질서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상징과 상상력의 층위를 포함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91).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익숙한 의미와 기능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관계와 사용 방식을 상상하는 경험은 공간의 전유와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시민성을 사회공간론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정체성뿐 아니라,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가능성을 구성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어린이 시민성 논의에서 참여의 제도화

어린이 시민성 연구에서 참여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Hart(1992)는 참여를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민주주의의 수단이자 시민성의 기본적 권리로 보았다(Hart, 1992:5). Lister(2007)는 어린이의 참여를 시민성의 실천이자 권리의 문제로 보았다(Lister, 2007:701-703). 국내에서도 학생 주도 환경프로젝트와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학교와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시민성교육의 중요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다(이광원, 2019: 45, 51, 55; 오민주·김찬국, 2022:667-669).

이러한 연구는 어린이의 참여를 선언적 권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교육 활동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참여가 사전에 구성된 시간과 장소, 과제와 절차 안에서 주로 이루어질 경우, 어린이가 참여의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활동에 참여하는지 뿐만 아니라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데 관여하는 참여는 전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유는 공간을 자신의 감각과 필요, 관계와 리듬에 따라 사용하고 의미화하는 실천이다. 프로젝트나 자치활동뿐 아니라,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타인과 사용 방식을 협의하며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바꾸어 가는 과정도 시민적 참여로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어린이 시민성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은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던 공간적 실천을 감각하는 차원, 주어진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다르게 해석하는 차원, 공간의 사용 방식과 질서에 개입하는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어린이 공간적 실천의 주변화,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화, 참여의 제도화라는 세 쟁점을 바탕으로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을 분석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공간적 실천·공간의 재

현·재현의 공간의 상호관계와 전유·차이 공간의 논의를 어린이 시민성의 문제에 적용하여 구성한 분석적 개념이다.

IV. 어린이 시민성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

본 장에서는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의 세 차원을 통해 어린이 시민성을 사회공간론적으로 재해석한다. ‘깨어나는 지각’은 어린이가 몸과 감각을 통해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며, ‘창조적 인지’는 공간에 부여된 의미와 기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하며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을 뜻한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이러한 감각과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만들어 가는 실천을 의미한다.

세 차원은 르페브르의 공간 삼중성과 일대일로 대응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분석의 차원이다. ‘깨어나는 지각’은 공간적 실천의 감각적 경험에, ‘창조적 인지’는 공간의 재현에 담긴 의미와 질서의 비판적 해석에, ‘활동가적 시민성’은 체험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유와 차이 공간의 형성 가능성에 주목한다.

어린이가 공간을 감각하고 해석하며 사용하는 경험은 누가 그 공간에 접근하고 머무를 수 있는지, 누구의 요구가 인정되거나 배제되는지, 공간의 사용 규칙을 누가 정하는지의 문제와 연결될 때 시민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는 어린이의 일상에서의 몸짓과 움직임, 요구의 표현과 협상 등 일상적인 표현과 실천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1. 깨어나는 지각: 일상생활 공간의 질서를 몸으로 읽기

추상 공간의 질서 속에서 어린이의 공간적 실천은 생활 지도와 관리의 언어로 해석되기 쉽다. 친구 곁에 가까이 있기, 구석으로 향하기, 특정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기와 같은 행위는 어린이가 공간을 살아내는 방식이지만, 학교에서는 규칙 준수나 행동 관리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몸의 움직임은 단순한 습관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어린이가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분위기, 관계와 가능성을 감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 시민성을 사회공간론

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은 어린이의 몸이 일상생활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읽어 내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발렌타인(G. Valentine)은 애드리엔 리치(A. Rich)의 표현을 빌려 몸을 ‘가장 가까운 지리’로 설명하며, 몸은 단지 공간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았다(Valentine, 2001, 박경환 역, 2014:40). 이러한 관점은 몸과 활동, 환경의 상호작용 및 감각적 경험을 강조하는 체화된 인지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김민성, 2019). 어린이는 걷는 속도와 시선의 방향, 소리와 냄새, 몸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공간이 자신에게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바를 알아차린다. 매일 같은 길로 등교하고 같은 복도를 지나 같은 교실에 앉는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도 공간의 압박과 여유, 불편함과 친밀함을 감각하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공간을 읽어 간다.

이러한 감각적 지각은 공간의 맥락, 곧 콘텍스트(context)를 읽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콘텍스트 읽기는 공간 안에서 만나는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의 사람, 사건, 문화, 정치를 이해하는 행위이다(김진애, 2019:147). 멈춤과 망설임, 빠른 걸음, 시선 피하기, 오래 머무르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 역시 어린이가 공간의 맥락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등굣길 학교 정문 앞에서 걸음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경험, 어떤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거나 머무르기를 피하는 경험은 어린이가 공간을 주어진 기능과 질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몸과 감각을 통해 의미화하는 과정이다.

‘깨어나는 지각’은 일상적 감각을 통해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뜻한다. 어린이가 자신의 몸과 리듬을 통해 공간을 읽기 시작할 때 공간은 더 이상 고정된 시설이나 규칙의 집합으로만 남지 않는다.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지각은 그 의미와 기능을 질문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며, 나아가 공간을 전유하고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2. 창조적 인지: 공간의 의미를 의심하고 비틀기

몸의 감각을 통해 일상생활 공간의 맥락을 읽는 일이 어린이 시민성의 출발점이라면, 창조적 인지는 공간에 부여된 익숙한 의미와 기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하는 과정이다. 공간에는 이미 ‘복도는 이동하

는 곳’, ‘운동장은 정해진 시간에 노는 곳’과 같이 특정한 기능과 사용 방식이 부여되어 있다. 창조적 인지는 이러한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정해졌으며 누구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묻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된다.

창조적 인지는 익숙한 공간의 의미 앞에서 잠시 멈추어 다시 바라보는 사유의 과정이다. ‘왜 이 공간은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가?’,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는가?’와 같은 질문은 공간의 규칙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어린이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공간의 재현에 담긴 전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미 정해진 의미와 다른 사용 방식이나 관계의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공간의 의미를 비트는 과정은 아이러니나 유머와 같은 인지적 전환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 아이러니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근거를 의심하는 사고이며, 유머는 익숙한 대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Chiba, 2017, 박제이 역, 2018:96-100). 예컨대 복도를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잠시 머물거나 또래와 관계를 맺는 장소로 바라보고, 운동장을 정해진 활동의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새로운 놀이 규칙을 만들어 가는 장소로 상상하는 것은 공간의 공식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지적 전환은 익숙한 공간 질서를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사용 가능성을 구성하게 한다.

‘창조적 인지’는 공간의 재현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어린이 시민성의 인지적 양상을 뜻한다. 어린이가 공간에 새겨진 익숙한 언어와 규칙을 질문할 때 공간은 고정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심, 만남, 놀이, 협상 등 다양한 관계와 실천이 가능한 장으로 다시 인식될 수 있다. 공간의 의미를 의심하고 다르게 상상하는 과정은 공간을 실제로 전유하고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구성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연다.

3. 활동가적 시민성: 공간 전유를 통한 새로운 질서 만들기

지각과 인지가 시민성의 문제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질서에 개입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천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어린이 시민성은 주어진 공간에 적응하고 정해진 절차 안에서 참여하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으며, 일상생활 공간에서

드러나는 불편과 요구를 공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실천과도 관련된다. 삶의 공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행동과 성찰을 통해 변화시켜 가는 과정은 지리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프락시스와도 맞닿아 있다(김창환·송훈섭, 2022).

어린이의 참여는 활동적 시민(active citizen)의 차원을 넘어 활동가적 시민(activist citizen)의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 활동적 시민이 주로 기존의 제도와 절차 안에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면, 활동가적 시민은 기존 질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권리 주장과 행위의 장면을 만들어 낸다(Isin, 2009:381; Yarwood, 2014:98-99). 이러한 실천은 때로 기존 질서의 관점에서 갈등이나 저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감각과 요구가 공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공간의 전유(appropriation)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전유는 기존 질서가 부여한 기능과 의미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요구와 관계에 맞게 공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구성하는 실천이다. 어린이가 통학로 안전에 관한 의견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동안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던 위험을 드러내고 통학로 계획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은 기존 참여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활동가적 시민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은 이러한 과정에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남지 않고, 새로운 관계와 권리 주장이 형성되는 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동가적 시민성은 Isin(2009)과 Yarwood(2014)의 시민성 논의에 기반하며,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은 이를 어린이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유와 차이 공간의 형성 가능성에 연결하여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어린이가 몸으로 감각한 공간의 문제와 창조적 인지를 통해 상상한 다른 가능성을 구체적인 요구와 행위로 표현하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실천을 뜻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어린이는 주어진 공간 질서에 참여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요구를 공적 의제로 제기하고 공간의 의미와 관계를 함께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권리, 의무, 참여, 정체성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어린이 시민성을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와 연결하여 사회공간론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는 어린이를 현재의 시민적 주체로 이해하고 어린이의 장소 경험과 시민성 형성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을 적용하여, 공간 질서가 생산되는 과정과 어린이의 몸과 감각, 관계와 실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주어진 공간의 이용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전유하는 주체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어린이 시민성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을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던 어린이 공간적 실천의 주변화,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화, 참여의 제도화라는 세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시민성을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으로 재해석하였다. ‘깨어나는 지각’은 어린이가 몸과 감각을 통해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과정이며, ‘창조적 인지’는 공간에 부여된 익숙한 의미와 기능을 질문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과정이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이러한 지각과 인지가 실제 행위로 이어져 공간의 사용 방식과 관계의 질서에 개입하는 실천을 뜻한다. 특히 활동가적 시민성은 기존 참여 형식을 넘어 새로운 권리와 행위의 장면을 만들어 가는 시민성의 논의를, 르페브르의 전유와 차이 공간의 관점에서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한 것이다.

르페브르 사회공간론의 의미는 어린이의 지각과 인지, 실천을 개별적인 경험이나 심리적 변화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한다는 데 있다. 어린이가 공간의 질서를 몸으로 감각하고, 그 의미와 기능을 질문하며, 자신의 필요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은 공간의 생산과 전유의 문제이자 시민적 실천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어린이 시민성은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고정된 자질이라기보다,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읽고 다른 가능성을 구성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린이 시민성교육과 학교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시사점을 준다. 시민성교육은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치기보다 어린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학교, 놀이터, 통학로 등의 공간을 직접 관찰하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 속에서 불편과 배제를 발견하며, 다른

사용 가능성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경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공간 재구성에서도 어린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 공간의 배치와 사용 규칙을 함께 논의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수정하고 평가하는 데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은 어린이를 공간의 수동적 이용자가 아니라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함께 구성하는 시민적 주체로 참여시키며, 일상생활 공간에서 전유와 차이 공간의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탐색하게 한다.

다만 본 연구는 1차 경험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이론적·해석적 문헌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해석이 실제 어린이의 일상적 공간 경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을 어떻게 감각하고, 반복되는 이동과 머무름 속에서 어떠한 리듬과 장소 감각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이 공간의 의미와 질서에 대한 질문과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이 어린이의 구체적인 공간 경험 속에서 어떻게 중첩되고 변화하며 나타나는지를 밝힌다면, 본 연구의 사회공간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훈석, 2013, “사회참여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중심 프로젝트학습 실천 방안,” 사회과교육, 52(2), 149-171.
-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파주: 한울.
- 김민성, 2017, “공간적 시민성의 개념화와 적용: 장애인 시각에서 대구 근대화 골목 바라보기,” 한국지리학회지, 6(3), 339-354.
- 김민성, 2019, “체화된 인지의 의미와 지리교육에서의 활용,” 한국지리학회지, 8(1), 1-18.
- 김정아·남상준, 2005, “장소 중심 지리교육내용 구성원리의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85-96.
- 김진애, 2019,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 12가지 ‘도시적’ 콘셉트」, 파주: 다산초당.
- 김창환·송훈섭, 2022, “플레이리의 프락시스 개념이 지리수업에 주는 함의,” 한국지리학회지, 11(1), 15-27.
- 김현주, 2020, “초등지리교육에서의 어린이 공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4), 1-16.
- 김혜진, 2020, “어린이 시민성의 의미와 사회과 교육적 함

의,” 사회과교육, 59(3), 309-324.

김혜진, 2022, “일상공간 내 어린이 제3장소에 대한 연구,” 사회과교육, 61(2), 1-26.

김혜진, 2023, “장소 기반 어린이 시민성 함양의 가능성 탐색: 학교 내 제3장소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62(4), 5-18.

류도향, 2024, “도시에서 차이의 공간 만들기: ‘공간 담론’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32(2), 105-137.

신승원, 2014,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공간 이론과 공간정치: 『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6(1), 63-98.

오민주·김찬국, 2022, “어린이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생주도 환경 프로젝트 사례연구,” 아동과 권리, 26(4), 655-674.

이광원, 2019,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사회과교육연구, 26(3), 43-58.

조철기, 2017,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2), 89-102.

Chiba, M., 2017, 「勉強の哲学: 来たるべきバカのために」, 東京: 文藝春秋(박제이 역, 2018, 「공부의 철학: 깊은 공부, 진짜 공부를 위한 첫걸음」, 서울: 책세상).

Hart, R.A., 1992,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Florence: UNICEF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Centre.

Howe, B., 2005, Citizenship education for child citizens, *Canadian and International Education*, 34(1), 42-49.

Isin, E.F., 2009, Citizenship in flux: The figure of the activist citizen, *Subjectivity*, 29, 367-388.

Jans, M., 2004, Children as citizens: Towards a contemporary notion of child participation, *Childhood*, 11(1), 27-44.

Kellock, A. and Sexton, J., 2018, Whose space is it anyway? Learning about space to make space to learn, *Children's Geographies*, 16(2), 115-127.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Lister, R., 2007, Why citizenship: Where, when and how children?,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8(2), 693-718.

Mechlenborg, M. and de Neergaard, M., 2024, Lefebvre's spatial triad for children: A teaching model for spatial thinking in the classroom,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33(2), 94-108.

Phillips, L.G., Ritchie, J., and Adair, J.K., 2020, Young children's citizenship membership and participation: Comparing discourses in early childhood curricula of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50(4), 592-614.

Rasmussen, K., 2004, Places for children—children's places, *Childhood*, 11(2), 155-173.

Ryder, G.M. and van Krieken Robson, J., 2023, Young children as citizens: Learning from practice in the early childhood setting, *Journal of Childhood, Education & Society*, 4(2), 114-123.

Valentine, G., 1996, Children should be seen and not heard: The production and transgression of adults' public space, *Urban Geography*, 17(3), 205-220.

Valentine, G., 2001,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London: Routledge(박경환 역, 2014,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사회지리학으로의 초대」, 파주: 한울아카데미).

Wall, J., 2012, Can democracy represent children? Toward a politics of difference, *Childhood*, 19(1), 86-100.

Yarwood, R., 2014, *Citizenship*, London: Routledge.

교신 : 김윤하,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
탐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과
(이메일: sketchbook32@naver.com)

Correspondence: Yunha Kim, 28173,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Department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sketchbook32@naver.com)

투고접수일: 2026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2026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2026년 8월 18일